| LS증권 Global Market Daily | 미국증시 코멘트 | 2026. 05. 08 |

안심하기엔 이른 중동상황, 유가 재반등에 증시 숨고르기

미국시황/ESG 김윤정 _ yunjeong.kim@ls-sec.co.kr
RA 성현영 _ hyseong@ls-sec.co.kr

유가 영향에 의한 증시 반락과 메모리·장비주 약세

- 미 증시는 DOW -0.63%, S&P500 -0.38%, NASDAQ -0.13% 하락
- 장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 출발한 증시는 이란발 유가 상승 재개됨에 따라 약세 전환. 대부분 섹터 약세 마감한 가운데 통신서비스, 임의소비재가 강보합권으로 방어, 소재, 에너지, 산업재 등 약세 뚜렷
- 필라델피아반도체 -2.7%. 전일 장마감후 발표된 ARM 실적 발표 여파 및 최근 랠리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 엔비디아(+1.8%)를 제외한 인텔(-3.0%), 마이크론(-3.0%), 브로드컴(-3.0%) 등 구성 상위종목 약세. 오픈 AI 발 자금조달 이슈도 우려 자극

중동 상황에 유가 변동성↑, 투자심리 변화를 촉발

- 장초 미-이란 종전 기대 확대에 WTI 기준 한때 $90 선을 밑돌기도 했던 유가는 이란에서 다시 강경한 발언이 등장하며 낙폭 반납 및 상승 전환. WTI $97.8(+2.8%), Brent $103.6(+2.0%)
- 이란 고위 당국자는 국영 프레스TV를 통해 미국의 비현실적 계획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이란에 가한 피해배상 문제 또한 언급. 미 정보당국 분석에 따르면 이란은 해상봉쇄상황에도 최소 3-4개월은 버틸 수 있는 것으로 평가
- 한편,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주 중단했던 프로젝트 프리덤 재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 양국 긴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페르시아만과 레바논 지역의 충돌 위험도 남아있다고 보도

유가 반등과 견조한 고용지표, 국채금리 상승 10Y 4.387(+3.3bp), 2Y 3.911(+3.9bp)

-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0만 건, 전주 대비 증가했으나 컨센 하회
- 1Q26 비농업 노동생산성 QoQ +0.8% 전분기 대비 감소했으나 컨센 상회(산출물 +1.5%, 노동시간 +0.7%). 단위노동비용 QoQ +2.3%로 전분기·컨센 하회하며 임금상승에 의한 인플레 우려는↓
- 4월 챌린저 감원계획 8.3만명, YoY -21%이나 MoM +38%. 기술기업 감원 3.3만명(연간누적 8.5만명)이 증가세 지속 주도

티커	종목명	수익률 (1D,%)	내용
NVDA	엔비디아	+1.9%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및 대만 폭스콘과 협력해 일본 내 AI 서버 자체 생산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 보도. 2020년대 말까지 조립 라인 구축을 시작으로 서버 제조 전 공정 내재화를 목표로 함
TSLA	테슬라	+3.3%	중국 인도량 호조에 주가 강세, 4월 상하이 공장 출하량 +36% YoY. 한편 후면카메라 영상 지연 문제로 자사 차량 약 22만대 리콜 발표. 전 차종(S·3·X·Y)이 대상이나 OTA(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즉각 대응하며 물리적 리콜 비용 리스크 최소화. 번외로 일론 머스크의 텍사스주 반도체 생산 공장 '테라팹' 투자규모 공개 (1차 $55B, 전체 $119B)
ARM	ARM	-10.1%	전일 실적발표에 따른 주가 약세. 실적 자체는 양호했으나, 자체개발칩 AGI CPU 수요 급증에 대한 공급 능력 불확실성 제기. 보수적인 향후 전망에 주가 약세
MU	마이크론	-3.0%	번스타인은 2분기 메모리 가격이 공급 부족으로 인해 예상치를 상회하는 급등세를 보일 것이라 전망. 마이크론, 샌디스크(-5.0%)에 대해 투자의견 '아웃퍼폼' 유지, TP 각각 $510, $1,700 제시. 다만 마이크론 및 샌디스크 주가는 ARM 실적 여파에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며 주가 약세
DDOG	데이터독	+31.3%	실적발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및 연간 가이던스 대폭 상향에 주가 강세. AI가 기존 S.W를 대체할 것이란 시장의 우려와 달리, AI 에이전트 모니터링 수요가 신규 성장 동력으로 부상. 더욱이 빅테크 기업과의 대형 계약 체결 및 정부 프로젝트를 위한 신규 보안 인증 취득 소식 더해지며 주가 상승